

조선후기 어보(魚譜)의 ‘명물고증’ 작업과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정쩌싱(鄭澤星)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조선시대사 전공
ppinoo0814@gmail.com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어보의 ‘작명’ 작업
 - III. 조선후기 어보에 나타난 어명 고증의 양상
 - IV. 어명 고증의 기능과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 V. 맺음말
-

I. 머리말

18, 19세기의 조선 사회에서 주자학적 의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연 사물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지적 탐구도 활발해졌는데, 후자는 이 시기 지식계의 중요한 변화상이었다. 당시 지식인들의 공부 양상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공부의 대상으로는 천지만물을 상정했고, 공부의 내용은 박학(博學)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¹, 공부의 방법으로는 실측과 고증이 중시되었다.² 다시 말해 조선후기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객관적 경험 세계에서 만난 다양한 사물과 그 사물에 관련된 지식, 정보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정리해서 증험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지적 변화의 소산으로는 18~19세기 여러 가지의 지식을 집대성한 박지원의 『삼한총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 총서·백과사전의 편찬, 그리고 특정 사물을 기록한 이서구의 『녹앵무경』, 이옥의 『연경(煙經)』, 김려의 『우해이어보』 등 전문적인 서적의 출현을 들 수 있겠다.

외부 사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 학문 활동은 보통 명물학(名物學)으로 지칭되는데, 명물학적 관심이 고증학적 방법론과 결합하면서 각종 문헌에서 외부 대상의 정보를 수합하는 지식 생산의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명물고증지학(名物考證之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 조선후기에는 '명물'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었지만

※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최 “제11회 세계한국학대회(2022.10.20.~21)”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구만옥, 「조선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제36권(2018), 637~638쪽.

2 하우봉, 「동아시아의 백과전서와 실학과 황윤석」, 『한국실학연구』 제40권(2020), 331쪽.

기존 연구들은 이에 대한 개념 해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다만 송시열은 명과 물이 각각 명칭과 실물을 뜻하며 ‘명물’은 사물의 이름과 실체를 포함해서 이르는 말로 천하만물을 가리킬 수 있다고 짐작한 바가 있다.⁴ 이에 따르면 ‘명물학’이란 물건 또는 물건의 종류를 가리키는 것⁵, 혹은 물건의 명칭과 특성을 변별하는 것⁶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좀더 나아가 명물학의 본질은 명과 물 사이의 이탈을 극복하고 둘의 대응관계를 성립시키고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부 사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명물학의 핵심이었으며⁷,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박학, 다식(多識)을 추구하는 과정은 그 사물의 이름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동아시아 사회의 유학 전통은 이러한 ‘이름을 알아보는’ 명물의 학문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 역시 『시경』을 읽는 이유는 아비와 군주를 섬길 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새, 짐승, 풀, 나무 등 자연물의 이름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이렇게 다식을 이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⁸ 정약용의 아들인 정학유가 바로 공자의 그런 뜻을 받아들여 『시경』을 주석하는 『시명다식』(1805)을 지었다. 또 조선후기 정약용의 『아언각비』(1819), 유희의 『물명고』(1824) 등의 책은 외부 사물의 이름을 광범위하게

3 노대환은 18세기 후반에 조선 사회는 명물고증학을 하나의 학문 분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권(2013), 543~547쪽 참조.

4 『宋子大全』(133), 雜著, 「退溪四書質疑疑義」. “名物, 天下之物有名, 皆謂之名物, 今之籩豆簠簋皆是也. 名物, 恐是名與物之意, 如以竹爲之者其名曰籩, 而其爲物則有底有蓋也.”

5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한국학』 제12호(1982), 87쪽.

6 이근식, 「이규경의 명물도수학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121호(2014), 143쪽.

7 노대환, 앞의 논문, 543쪽.

8 『論語』, 陽貨篇. “子曰: ‘小子, 何莫學夫詩?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시 명물학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명물에 밝지 못하면 사물의 이름을 오독하여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거나 동식물을 잘못 먹어 목숨을 해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계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경전에서는 진(晉)나라 채모(蔡謨, 281~356)가 『이아』를 숙독하지 않아 방계를 판별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는 전고가 종종 보인다. 조선후기의 이만영은 『재물보』(1798)의 서문에서 채모의 전고를 인용하여 명물학의 중요함을 지적하였다.⁹

이와 같이 사물의 이름을 파악함으로써 그 사물을 이해하는 지식 수집과 기록 행위는 중국이나 조선의 명물 전통의 일환이고 훈고학 또는 고증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송나라 주질(朱質)은 한나라 양웅(揚雄) 『방언』의 판각본(1260)을 위해 쓴 발문에서 양웅의 박식함과 당시 훈고학의 발달을 연관 짓고 박학에 있어 사물 이름의 음과 뜻을 깊게 천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⁰ 중국을 비롯한 전통 동아시아의 명물학은 사물의 명칭을 대상으로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사물을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경전에 몰두하여 훈고와 고증을 통해 그 사물 명칭의 유래, 별칭, 진위여부, 변화과정 그리고 문화적 함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¹¹ 조선후기 명물과 고증의 결합은 중국 명물학과 고증학의 이러한 내적 연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외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후기 북학파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이 청나라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청나라에서 성행하던 명물학과 고증학을 동시에 수용하여 명물과 고증

9 李晚永, 『才物譜』, 序. “苟名物之不明, 則不獨金根杖杜之差, 貽笑萬代. 或錯餌茯神, 誤食虻蜋者, 有焉. 所以資生者, 反以殘生, 可不慎歟!”

10 揚雄, 『方言』, 朱質, 「跋李刻方言」. “漢儒訓詁之學惟謹, 而楊子云尤爲洽聞. 蓋一物不知, 君子所耻, 博學詳說, 將以反約. 凡其辨名物, 析度數, 研精覃思, 毫釐必計, 下而五方之音, 殊俗之語, 莫不推尋其故, 而旁通其義. [...] 平時所以用力於此深矣, 世知好之者蓋鮮.”

11 揚之水, 『古詩文名物新證』(紫禁城出版社, 2004), 566~570頁.

분야의 학문적 진전을 도모하려 했다.¹² 연구방법으로서의 고증학이라는 지적 자원이 수용·확보된 상황에서 경전 해석과 연구에서는 물론 자연 사물의 정보를 기록·처리할 때도 그 사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명실상부한 지를 고증이란 방법을 통해 증험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초반 조선에서 저술된 어보, 즉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기록한 저술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시대의 3대 어보로 알려져 있는 김려(金鑣)의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1803), 정약전(丁若鎔)의 『자산어보(茲山魚譜)』(1814)와 서유구(徐有集)의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 「어명고(魚名攷)』(1820)¹³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당시의 명물학적 풍조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어보는 조선후기에 일어난 학문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종래의 학자들은 근대 박물학이나 현대 생물학을 기준으로 하여 어보들의 어류 분류체제나 저술 방식 등에 보이는 합리성을 부각시키고, 이들 어보에 과학성과 근대성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근대 서양에서 과학 분과로 성립된 박물학이나 생물학에 비하면 동아시아 사회에 존재하던 박물이라는 지적 전통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경』과 『이아』 이래로 다식이라는 목표와 훈고라는 수단을 요구해왔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이른바 ‘명물고증학’을 통해 다식과 훈고의 관념이 새롭게 나타나 성리학에 맞서거나 그와 어울릴 만한 지적 역량으로 작용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 조선후기 어보들의 성격은 동아시아 고유의 박물 전통을 근간으로 접근해야 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12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연구』(일조각, 1996), 24~25쪽.

13 서유구의 『난호어목지』는 현재 그중에 실린 「어명고(魚名攷)」만 남아 있다. 이 「魚名攷」는 나중에 서유구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의 『전어지(佃漁志)』에 다시 수록되었다. 『난호어목지』 「어명고」와 『전어지』 「어명고」는 내용상 기본적으로 같으나 세부적인 수정, 첨삭 사항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유구가 지은 어보를 「어명고」라고 칭하고, 다만 구체적인 사료 사용의 경우 서지 표제를 구분해서 표시하고자 한다.

한편 어보의 저자들이 관찰, 해부, 고증 등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보의 과학성과 근대성이라는 대목에서 근대 과학적인 수단으로서의 관찰과 해부는 항상 거론되어왔던 반면, 동아시아의 박물적 전통에 기초한 고증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검토는 많지 않다. 어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고기 이름에 대한 고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어보의 명물고증 작업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증학은 일반적으로 증거를 모아 사실을 밝히는 학문으로 경전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고훈을 숭상하는 것이 그 핵심으로¹⁴, 어보에서 물고기 정보를 기록할 경우 현장에서 관찰을 통해 얻은 경험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이 문헌에서 얻은 지식과 어떤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보였을까? 또 동아시아라는 지리적·문화적 공간에서 조선, 중국, 일본 등이 한문 중심의 어류 지식 체계를 상당한 정도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어보에서 한문 문헌을 고증할 때 토착 지식과 외래 지식이 어떤 충돌이나 조화의 모습을 보였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조선후기 어보의 명물고증 작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선후기 어보의 ‘작명’ 작업

어보에서 물고기의 정보와 지식을 기록·정리하기 위해서는 물고기의 명칭과 물고기의 실체를 서로 대응시키는 작업이 첫걸음이자 핵심이다.

14 서경요, 「조선조 후기 학술의 고증학적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권(1994), 514쪽.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보에서 특정한 물고기를 가리키는 표시 기호를 적어 둔 것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 물고기마다 어울리는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김려가 『우해이어보』에서 차차 표기법으로써 물고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¹⁵ 김려는 한자만을 사용하였고 순한글로 되어 있는 물고기 이름을 기록하는 데에 있어 기존의 한자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이름의 의(義)와 음(音)에 의거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도 하였다. ‘보라어’와 ‘증울’이란 물고기가 그 예이다.

[1-a] 甫鱸魚: 보라(甫羅) → 보라(甫鱸) + 어(魚) → 甫鱸魚

색깔이 옅은 자주색이라 토착인들은 보낙 혹은 풀락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 나라 방언으로 옅은 자줏빛을 ‘보라’라 하고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니, ‘보라’는 아름다운 비단을 말하는데 ‘보라’라는 이름은 이에서 비롯되었다.¹⁶

[1-b] 魷鱈: 증울(蒸鬱) → 증울/정울/정얼/증얼 → 魷鱈

토착인들은 이를 증울이라 하는데, 증증울울이란 머리가 아프다는 말이다. 토착인들이 말하기를, 이 물고기는 장기가 변화된 것이라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반드시 장려병이 일어난다고 한다.¹⁷

[1-a]의 사례에서 김려가 ‘보라’를 표기할 수 있는 한자 ‘甫羅’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羅를 鱸로 대체하여 ‘보라’를 ‘甫鱸’로 붙였다. 또 [1-b]의 사례에서 속어로 된 ‘증울’이라는 이름을 수용하여 두 글자의 음과 비슷한 魷과

15 이에 대해 김우정, 「『우해이어보』의 성격에 관한 재론」, 『해양문화재』 제15호 (2021), 29~50쪽 등 참조.

16 金鑪, 『瀟庭遺藁』(8), 『牛海異魚譜』. “淡紫, 土人呼以甫絡, 或稱叟犖魚. 然東方方言, 以淡紫色爲甫羅, 甫美也. 甫羅者, 猶言美錦也. 然則甫羅之名, 必昉於此.”

17 위의 책. “土人謂之蒸鬱, 言蒸蒸鬱鬱然頭痛也. 土人言此魚乃瘴氣所化, 此魚盛捕則必有瘴癘云.”

藥에다가 魚 자를 편방에 보내 鯨과 鱓이라는 새로운 한자를 창조하였다. 이러한 작명은 기본적으로 물고기의 순한글 이름의 음에 의거하여 해당 한자를 빌려 쓰고 또 물고기를 뜻하는 魚 자를 이름의 구성요소로 삼아 선정된 한자에 붙인 것으로 파악된다.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려는 사대부들이 흔히 볼 수 없었거나 알지 못했던 '기이하고 괴상하며 놀라운 물고기들'을 선별적으로 다루었는데, 이러한 이어(異魚)들은 종래의 지식체계로는 처리·파악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이들의 이름과 실체 사이의 대응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김려는 이어들이 존재하고 수량이 많음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모양, 색깔 그리고 성질, 맛 등을 기록하였던 것이다.¹⁸ 결국 김려의 작명 작업은 이어들의 실체를 인지하고 자신의 인식 체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한자라는 기호를 사용해 그 경험적 실체와 대응관계를 맺어주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슷하게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지은 것도 그가 흑산도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가 많음을 알고 박학(博學)의 필요함을 의식하면서부터였다.¹⁹ 정약전은 명물의 첫걸음인 '이름을 알아보는 것[知名]'을 이 어보의 가장 중요한 저술 취지로 삼았다. 서문에 보이는 바와 같이 흑산도의 물고기 중에 『본초강목』을 보고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혹은 옛날부터 이름이 없어 고찰할 수 없는 것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라 한다.²⁰ 이에 비해 서유구의 「어명고」는 이어의 학문(爾雅之學)에 대한 중시를 호소하는 입장에서 여러 문헌에서 물고기 이름의 '올바른 것[正者]'을 확인하려 했다. 이들의 작명 방식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차이점이 드러난다.

18 위의 책, 序. “夫魚之詭奇靈惟可驚可愕者, 不可彈數. 始知海之所包, 廣於陸之所包, 而海蟲之多, 過於陸蟲也. 遂於暇日, 漫筆布寫, 其形色性味之可記者, 並加採錄.”

19 丁若銓, 『茲山魚譜』, 序. “茲山海中魚族極繁, 而知名者鮮. 博物者, 所宜察也.”

20 위의 책, 序. “顧余固陋, 或已見『本草』, 而不聞其名, 或舊無其名, 而無所可考者, 大半也.”

[2-a] 碧紋魚[俗名臯登魚] 長二尺許，體圓，鱗極細，背碧有紋。味甘酸而濁。[··] 稍小者[俗呼道塗音發]，頭稍縮，形稍高，色稍淡。『자산어보』

[2-b] 古刀魚[고도어] 出湖南海洋。形似青魚而無鱗，背兩邊相對，有硬鬣如刺巨尾。腹內有黑血，縷縷成條。大者尺餘，小則三四寸。[··] 『전어지』 「어명고」

[2-c] 鮓魚[俗名民魚] 大者，長四五尺，以周尺言之，下皆做此。體稍圓，色黃白，背青黑，鱗大。[··] 幼者，俗呼巖峙魚。又有一種，俗呼富世魚。 ○案：鮓，音免，東音免·民相近。民魚，即鮓魚也。『說文』云：“鮓，魚名，出葦邪國。”葦者，我國嶺東地也。然今嶺東之海，未聞產鮓。西南之海，皆有之耳。[··] 又按：『東醫寶鑑』以鮓魚爲民魚，然鮓即鮓也，生於江湖，而無鱗。陳藏器，誤以鮓爲鮓。李時珍辨之：“鮓與鮓不可混也。”『자산어보』

[2-d] 鰲魚[민어] [··] 『東醫寶鑑』，疑即鮓魚，此因『醫學入門』有“鮓魚，生南海。鰲可作膠”之文而意之也。然鮓即鮓魚，一名鰲魚，江淮間無鱗魚也。郭璞云：“鰲似鮓而大，白色。”李時珍云：“似鰲而鼻短。”其產地與色狀，與石首魚判焉不同，其非今之民魚也明矣。蓋『醫學入門』沿襲陳藏器『本草拾遺』而誤，『本草拾遺』又錯看杜寶『拾遺記』，而轉輾訛舛。『本草拾遺』云：“鮓生海中，大如石首魚，作膾如雪。隋朝吳都，進鮓魚膾。”其說本出『拾遺記』，而『拾遺記』作鮓魚，不曾云鮓魚也。鮓·鮓字相似，遂有此，金銀魚魯之誤耳。[··] 參互諸說，則東俗所謂民魚，即『拾遺記』之鮓魚，『樂清志』之鰲魚。鰲，『集韻』音愍，東人之呼爲民魚，音近而訛也。『전어지』 「어명고」

첫째, [2-a]와 [2-c]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은 먼저 물고기의 ‘본격적인’ 한자 이름 이른바 원명(原名)을 표제로 적은 다음 그 아래에 이 물고기의 조선 속명(俗名)을 또한 한자로 표기하였다. 아울러 설명 부분에서 같은 종류의 물고기에게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속명이나 방언 호칭이 있을 경우 역시 한자로 그 별칭을 표기하였다. 그런데 [2-b]와 [2-d]의 표제처럼 서유구는 「어명고」에서 물고기 표제 밑에 붙인 속명 표시는 물론 설명 부분의 다른 속명에 한자와 한글을 함께 써서 제시한 점이 정약전과 판이하게 다르다.

둘째, 같은 물고기에 대해 정약전과 서유구는 각각 다른 한자 이름을 선택해서 원명으로 삼았다. 고등어의 경우 『자산어보』에서는 이 물고기의 등이 푸르고 무늬가 있으므로[背碧有紋] ‘벽문어(碧紋魚)’라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였고, 「어명고」에서는 조선초기 『동국여지승람』에서 최초로 등장한 ‘고도어(古刀魚)’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 두 이름은 모두 중국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데 전자는 정약전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후자는 서유구가 당시 조선에서 통용되던 이름을 빌려 쓴 것이다. 민어의 경우 정약전과 서유구는 각각 중국 문헌에서 나오는 ‘면어(鮓魚)’와 ‘민어(鱻魚)’란 한자 이름을 사용하였다.

정약전과 서유구의 작명 방식에는 왜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할까? 먼저 물고기의 속명 표기의 한글 사용 여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당시의 실학적 분위기를 표현한 ‘이용후생’ 등을 거론하며, 다소 선험적인 실학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개입시킨 입장에서 속명을 한글로 적은 것은 실용적인 가치가 높고 지식의 대중화를 꾀한 것이라 보고 있다. 속명을 거꾸로 한자로 표기하고 심지어 자의로 물고기를 작명한 정약전²¹에 대해서는 유학자로서의 고루함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²² 다만 정약전과 서유구가 상정한 이 어보들의 독자층이 누구였을까? 정약전의 입장에서 『자산어보』는 후학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로 치병, 이용, 재산관리²³ 및 작시

21 『자산어보』의 전체 226종 동식물 가운데 중국 문헌에서 가져온 한자 이름이 41종, 조선 속명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22종, 방언을 한자로 번역한 이름이 32종, 직접 창명한 것이 131종으로 대략 58%를 차지한다. 정명현,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2), 28~30쪽 참조.

22 이덕봉, 「한국생물학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편), 『한국문화사대계(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420쪽.

23 원본에 적힌 이 두 글자가 ‘이칙(理則)’인지 ‘이재(理財)’인지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다. 서종태는 정약전에게 이용후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의 탐구’라는 순수 과학적 현상에 대한 분석의 목적이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서문에 적힌 ‘理則’을 ‘원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서종태, 「손암 정약전의 실학사상」, 『동아

등 방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²⁴ 이 어보는 정약전 자신과 같은 지식인, 즉 사대부 계층들의 생활, 학문을 위해 저술된 것이다.²⁵ 또 “속어만 으로 부를 수 없는 물고기에 대해 대담하게 (한자로) 작명해 주겠다[只憑俗呼 俚, 不堪讀者, 輒敢創立其名]”는 정약전의 의지는 한자를 알아보는 지식인 계층에게 생활 지식을 전달하려는 목적의식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산어보』에 실용정신,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한들²⁶ 일반 민중이 그 책을 보고 내용을 익혀 그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먼저 지식인, 혹은 관리층들의 정보 처리와 지식 수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저자 정약전의 과제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유구의 「어명고」에서 또한 ‘우리나라 사대부[我東士大夫·學士大夫]’, ‘박식한 군자[博識君子·博雅者]’ 등 대상을 염두에 두고 어명 고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려는 취지가 종종 보인다. 그리고 「어명고」에는 물고기 속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지만 어보 내용으로 보아 거의 전체가 한자로 저술되어 있는 이상 이 어보의 상징 독자층은 결코

연구』 제24권(1992), 302쪽 참조.

이에 대해 정명현은 『자산어보』 8개 필사본 중 2곳에는 ‘理財’로 표기되어 있고, 6곳에는 ‘理則’이라 되어 있으나 ‘理財’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理財’가 문맥상 더 적합하고 ‘理則’로 적힌 두 개의 필사본(가람본, 서강본)의 정확성(신빙성)이 더 높다는 점에 근거했다. 정명현, 앞의 논문(2002), 23쪽 참조. 본고에서는 정약전이 앞서 밝힌 ‘치병’과 ‘이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유용성을 기준으로 사물을 분별하려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이재’가 문맥상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명현의 주장을 따랐다.

24 丁若銓, 앞의 책, 序. “以資後人之考驗 [...] 後之君子, 因是而修潤之, 則是書也, 於治病·利用·理財數家, 固應有資, 而亦以補詩人, 博依之, 所不及云爾.”

25 허태용, 「丁若銓의 茲山魚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4호(2005), 239쪽.

26 최성환,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역사』 제36권(2015), 238~239쪽; 김동진·백종진,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기사의 해양생물과 〈자산어보〉」, 『인문학연구』 제13집(2012), 63쪽.

서민층이 아니었을 것이다. 게다가 『우해어보』나 『자산어보』에서 물고기의 속명은 기본적으로 이두식 차자 형식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독자인 조선의 지식인들이 한자 속명을 가지고 현장을 조사하거나 어민들과 대화한다 해도 음이 흡사해서 양자 간 소통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서 여러 어보가 물고기의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식이 공유될 대상을 감안했을 때, 한자 표기이든, 한글 표기이든 지식인 계층의 독자가 겪게 될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물고기의 한자 원명을 선정할 때 정약전과 서유구에게 역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고등어는 당시 조선의 문헌에서 고도어(古刀魚), 고도어(古道魚), 고등어(古登魚), 고동어(古同魚) 등 여러 이름이 혼재되어 있고 주로 말린 상태의 화물로 유통되거나 진상되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약전은 이 어명들을 쓰지 않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당시 흑산도 유배 생활에서 문헌 자료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약전은 물고기 이름을 선정할 때 자신의 독서 기억에만 의존하여 문헌에서 나오는 한자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견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하지만 통용되는 속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본격적인 원명’을 내세우려는 정약전의 자세는 어찌 보면 실용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압도하는 한문 지식 체계를 지키는 자로서의 고귀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정약전과 달리 서유구는 당시 통용되는 고등어의 속명을 사용하며 한자

27 鄭文基, 「古刀魚の語源と古代の朝鮮鱈漁業」, 《東洋水産新聞(朝鮮水産新聞)》, 1934년 12월 15일호, 285~287쪽.

28 조창록, 「《자산어보》 원편과 이청의 재편집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제33권 (2017), 311~312쪽.

‘古刀魚’와 한글 ‘고도어’를 함께 표기하였다. 그리고 민어의 경우 문헌에서 나오는 면어(鮓魚)와 민어(鰲魚)가 조선 민간에서 부르는 민어(民魚)와 동일한 것을 인식하고서 오히려 보기 드문 민어(鰲魚)를 표제로 삼았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에서 쓰던 속어와 일치시키고 언어 사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 [2-d]의 설명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유구는 『동의보감』 등 본초서에서 외어(鮓魚)가 민어와 같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鮓 자와 鮓 자의 외형이 유사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민간에서 민어(鰲魚)를 민어(民魚)로 부르는 것이 鰲 자와 民 자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 해석하였다. 사실 『자산어보』에서도 일부 의서에서 외어(鮓魚)와 면어(鮓魚)를 같은 것으로 착각했다고 지적했는데, 서유구는 기존의 오류를 지적·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어(鮓魚)가 아닌 민어(鰲魚)를 원명으로 규정함으로써 오류 발생을 줄이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인 작명 작업을 통해 볼 때 비록 세 사람이 모두 한자 독해력이 있는 지식인 계층을 어보의 대상 독자층으로 상정했지만 지식 이해·수용의 차원에는 의식적 차이도 있었다. 어느 정도 지식인의 의식 세계에만 머물렀던 김려와 정약전에 비해 서유구는 조선 민간의 실정을 더욱 충실하게 반영하고 독자층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배려적 사고, 실용적 정신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Ⅲ. 조선후기 어보에 나타난 어명 고증의 양상

특정한 표시 기호를 해당 물고기의 실체와 대응시킨 다음 이러한 대응 관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증험해야 한다. 어보에서 이러한 작업은 보통

경험적 지식과 문헌에서 얻은 지식을 통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후기 어보에서는 현장 조사와 함께 문헌 고증이라는 지식 처리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3개 어보의 내용에 나타난 어명 고증의 비중은 각각 다르다.²⁹ 김려의 『우해이어보』에서는 어명 고증의 작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총 네 군데에서 문헌을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 문헌은 『속본초』, 『동의보감』, 『주서』, 『예기』, 『의서』, 『한서』 여섯 개밖에 없다. 게다가 위 문헌들을 인용하면서 물고기 이름에 대한 고증이라기보다 물고기에 관한 전고를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보태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우해이어보』가 기존 문헌에 거의 없는 이어(異魚)들을 기록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문헌 고증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편 김려의 저술 동기가 낯선 자연물에 대한 호기심과 유배생활의 심심풀이에서 나온 것을 보면 흥미 위주로 물고기를 기록했을 뿐 문헌 고증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김려가 기록할 만한 이어를 선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가 보기에 먼저 말로 표현되는 이름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의 뜻을 해석할 여지가 있어야 했다.³⁰ 어명에 대한 김려의 풀이는 문헌에 의한 고증보다 말놀이로 삼아 나름의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해이어보』와 달리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서유구의 「어명고」는 문헌 고증의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어보의 어명 고증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먼저, 참고·인용 문헌의 수량이 많고 장르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두

29 한미경은 3대 어보에서 인용된 문헌을 간단하게 정리한 바 있다.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2009), 261~262쪽 참조.

30 金鑣, 앞의 책, 序. “若夫鯪鯢鯢鯢魴鱖鯛人所共知者, 與海馬海牛海狗猪羊之與魚族不干者, 及其細瑣鄙猥不可名狀, 且雖有方名而無意義可解, 侏儻難曉者, 皆闕而不書.”

어보에서 표제나 저자가 직접 밝힌 인용 문헌은 『자산어보』가 104종, 「어명고」가 118종으로 확인된다. 공통적으로 이시진의 『본초강목』을 비롯한 중국 문헌 인용을 위주로 하는 가운데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대표되는 조선 문헌도 종종 참고하였다. 인용 문헌의 장르는 대체적으로 본초서/의서, 사전/자서, 지리서/지방지, 역사서, 유서/백과전서, 문학작품, 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본초강목』류 서적과 『이아』류 서적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조선의 어류 지식 전통³¹에서 본초학 전통과 경학 전통이 당시에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자산어보』와 달리 『전어지』 「어명고」의 인용 문헌으로 『어경(魚經)』, 『연서지(然犀志)』, 『민중해착소(閩中海錯疏)』 등 중국의 어보를 인용한 것과 함께 일본 문헌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를 적극적으로 참고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 이러한 문헌들이 이미 조선에 전래되었고 지식인들 사이에 활용되었던 것³²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용 문헌 범주의 차이는 유배 중인 저자들에게 문헌 별 입수나 접근 난이도가 달랐거나 각자의 연구대상이 달랐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연구 대상으로 접근해보면 흑산도 지역의

31 김문기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어류에 대한 박물학적 지식의 전통에 대해 (1) 『시경』과 『이아』로 이어지는 감성적인 교감, (2) 『산해경』과 『박물지』로 연결되는 이국적이고 괴이함에 대한 탐구, (3) 『우공』의 전통을 잇는 지리서의 체험적 지식, (4) 유서류의 종합적인 취합, (5) 본초서의 실용적 효용 이 다섯 갈래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어보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41권(2014a), 111~139쪽 참조.

32 『화한삼재도회』는 최초로 18세기 중반에 조선통신사의 사행과정에서 조선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대에는 정약전, 서유구와 인적으로 밀접한 이가환, 이덕무, 황윤석, 박제가 등 지식인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적극 활용되었다. 안대희, 「18, 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제69권(2010), 426~427쪽; 조창록, 「『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徐有集의 일본 인식: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8권(2012) 105~106쪽 참조.

물고기만 다뤘던 정약전에 비해 서유구는 조선 전역의 물고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중국과 일본의 물고기와 비교·변별하려는 연구 지향점³³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당시 이 3대 어보 사이에 뒤의 것이 앞의 것을 참고·인용한다는 친연성 혹은 계승 관계가 보이지 않는데³⁴ 이것은 대개 당시 어보들이 제때 간행되지 못하고 또 다른 저자가 입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보 저자들은 나름대로 여러 문헌을 참고하며 고증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자산어보』와 『전어지』 「어명고」의 경우, 인용 문헌의 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직접 인용이 아니라 재인용이나 간접 인용이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정명현이 확인한 결과 『자산어보』에 인용된 문헌은 총 104종이나 실제로 보고 참고한 문헌은 56종 정도일 것이다.³⁵ 인용의 재인용이 겹치기 때문에 인용 문헌으로 올라와 있어도 서유구가 직접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김문기의 지적도 있다.³⁶ 『전어지』 「어명고」에 실린 함진(蠃蠃)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3-a] 蠃蠃[함진조개³⁷]. ②生海泥中，形類車渠而無溝文，扁薄而長，色淡黃赤，

33 徐有渠, 『蘭湖漁牧志』, 「魚名攷」, 論海魚未驗·總論. “我國三面環海，東隣日本，西接遼海。潮汐之所往來，魚鼈之所孳育，初無有方域之限，則一切魚族之出遼海·日本者，皆吾東產也。然今以本草諸家及『和漢三才圖會』，按名考驗，則其彼有而此無者十居二三，何哉。盖未嘗無之，而漁工海夫，不能言其名。學士大夫，又不肯留心勘驗，遂疑其無耳。今並列其形名色狀，以備詢考證正。”

34 조창록, 「김려의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전어지》의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제47집(2016), 197~198쪽.

35 정명현, 앞의 논문, 39~41쪽.

36 김문기, 「《전어지》의 어류박물학과 《화한삼재도회》」, 『명청사연구』 제48권(2017), 130~131쪽.

37 蠃蠃은 『전어지』 「어명고」에서 ‘함진조개’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화한삼재

有細毛，兩殼相合一，頭有細齒，嵌合如文蛤。肉滿殼內，味淡性冷。往往有珠，光耀異常，故日本人喜採之。③凡日本珍珠，皆得之蠃蚌·淺蜆兩種者也。①『嘉祐本草』作生進(蠃)，『臨海水土記』作蠃蚌。『전어지』 「어명고」

[3-b] 蠃蚌 音咸進(宋『嘉祐』) ①釋名: 生蠃(『嘉祐』), 蠃蚌(『水土記』) 集解: 藏器曰: “蠃生東海，似蛤而扁有毛。” 頌曰: “似蛤而長身扁。” 宗奭曰: “順安軍界河中亦有之，與馬刀相似，肉頗冷，人以作鮓食，不堪致遠。” 殼，主治，燒末服，治痔病(藏器)。肉(宗奭曰: “多食發風.”)。『본초강목』(46) 介部(2)

[3-c] 蠃蚌[あこやかい]. …… 按: ②蠃蚌生海泥中，外黃淡赤色，如毛，剝之皮毛剝而滑，其狀類似車渠而無溝文。薄扁稍長，殼縫目有齒如蛤，其肉滿殼 […] 勢州多有之，其珠光澤，謂之伊勢眞珠[ミキモト眞珠].³⁸ 『화한삼재도회』

[3-d] 眞珠[しんじゆ]. …… 按: 眞珠以鰓[アハヒ]珠爲最上，然得之者鮮，③故今用蠃蚌[アコヤカイ]·淺蜆[アサリ]二種而已.³⁹ 『화한삼재도회』

『전어지』 「어명고」 함진(蠃蚌) 기사에서 직접적인 문헌 인용이 아닌 것과 고증의 여러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① 부분에서 서유구가 『가우본초』와 『임해수토기』에 적힌 함진의 별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두 책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초강목』 염진(蠃蚌) 기사에서 ‘석명(釋名)’의 내용을 문장체로 옮겨 쓴 것이다. 이처럼 『본초강목』이라는 표제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내용상 『본초강목』을 참고하여 고증한 것이다. 재인용

도회』의 蠃蚌[あこやかい]에 해당하는 조개, 즉 ‘진주조개’라고 보는 김문기의 주장이 있다. 또 키조개는 진흙에서 살며 흑진주를 만들기 때문에 설명상 함진조개는 ‘키조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위의 논문, 152쪽; 임원경제연구소, 『임원경제지 전어지(2)』(풍석문화재단, 2021), 473쪽 참조.

- 38 『和漢三才圖會』(47), 介貝部. 생각건대 蠃蚌은 바다 갯벌 속에서 산다. 겉은 황색과 얼은 적색이며 털이 있다. 모양은 車渠와 같고 도랑처럼 패인 무늬가 없으며, 납작하고 얇으면서 길다. 껍데기가 물리는 데에 대합조개와 같이 생겨 이빨이 있다. 껍데기 안에 살이 가득 있다. […] 진주가 광채가 있어 그것을 伊勢眞珠라고 한다.
- 39 위의 책, 介貝部. 생각건대 진주는 鰓의 진주가 최고인데 그것을 획득하기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蠃蚌·淺蜆 이 두 종류의 진주를 사용하고 있다.

의 방법이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도 있는데 주로 ‘누가 무엇을 인용해서 말하기를’⁴⁰이라는 문장을 쓰거나 재인용의 문장 뒤에 ‘어디에 나온다’⁴¹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인용의 원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② 부분은 함진의 모양과 습성 등 생태학적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 『화한삼재도회』에도 실린 함진(蠃蠃) 조의 해당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서술이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유구가 『화한삼재도회』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문장을 조금 고쳐서 옮겨 쓴 것을 보면 서유구는 적어도 자신이 직접 함진을 본 적이 있고 『화한삼재도회』의 해당 내용이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과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빌려 썼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는 『화한삼재도회』의 간접 인용인데 그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간접 인용은 어보에서 더 많이 존재할 것이며 그것이 확인된다면 밝혀지지 못한 인용문헌이 더 있고, 개별적인 문헌의 인용 횟수도 기존의 집계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③ 부분은 함진에 진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론한 것이다. 이 내용은 『화한삼재도회』 진주(眞珠) 조에서 참고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서유구가 한 종류의 해양생물을 고증할 때 그 종류의 정보에만

40 예) 徐有渠, 『佃漁志』(4), 「魚名攷」, 杜夫魚. “『正字通』引『魚經』曰, ‘鯽魚有附土者曰京魚, 一曰吐鮫.’” (두보어. “『정자통』에서 『어경』을 인용하여 ‘즉어 중에 땅에 붙어 있는 것을 경어라고 하고 또 토부라고 한다.’”)

41 예) 丁若銓, 앞의 책, 踏水魚. “『臨海異物志』: ‘石首魚, 小者, 名水; 其次, 名春來.’ 田九成 『遊覽志』: ‘每歲四月, 來自海洋, 綿亘數里. 海人, 乃下網, 裁流取之. 初水來者, 甚佳; 二水·三水來者, 魚漸小而味漸減.’ [出『本草綱目』]”(추수어. “『임해이물지』에서 ‘석수어 가운데 작은 놈을 추수라 하고 그 다음으로 작은 놈을 춘래라 한다’라고 했다. 전여성의 『유람지』에서 ‘해마다 4월에 바다에서 오는데 물고기 때가 몇 리에 걸쳐 이어진다. 바닷사람들이 그제야 그물을 내리는데, 때의 흐름을 잘라 잡는다. 첫물에 오는 놈들이 매우 좋고, 두세 번째 오는 놈들은 점점 작고 맛도 점점 떨어진다’라고 했다[『본초강목』에 나온다.]”)

국한하지 않고 더 다양한 지적 자원을 동원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초강목』에도 진주(眞珠) 조가 함진(蠙蠶) 조를 뒤이어 나오는데 여기서 『본초강목』 진주(眞珠) 조 내용을 참고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화한삼재도회』의 진주(眞珠) 내용을 빌려 쓴 것은 역시 앞의 ② 부분이 이미 『화한삼재도회』에서 따온 이상 문맥상 일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서유구의 「어명고」는 어명 고증의 구현 방식은 다르지만 지식 정보의 조달 방식은 궤를 같이한다. 속어로 조기라 부르는 물고기에 관한 두 어보의 기록을 정리·비교해 보자.

[4-a] 躡水魚[俗名曹機] 大者一尺餘. 狀類鮓而體稍狹. 味亦似鮓而尤淡. 用如鮓, 卵宜醢. 興陽外島, 春分後網捕; 七山海中, 寒食後網捕; 海州前洋, 小滿後網捕; 黑山海中, 六七月始夜釣. 水清, 故晝不吞釣. 已盡產卵, 故味不及春魚者. 腊之不能耐久. 至秋稍勝. 稍大者[俗呼甫九峙], 體大而短, 頭小而俯, 故腦後高. 味羶, 惟堪作鱠. 產於七山者, 稍勝而亦不佳. 稍小者[俗呼盤匡], 頭稍尖, 色微白. 最小者[俗呼黃石魚], 長四五寸, 尾甚尖. 味甚佳. 時入於漁網中. ○ 睛案: 『臨海異物志』: “石水魚, 小者名水; 其次名春來.” 田九(汝)成 『遊覽志』: “每歲四月, 來自海洋, 綿亘數里. 海人乃下網裁流取之. 初水來者甚佳, 二水·三水來者, 魚漸小而味漸減.”[出『本草綱目』] 蓋此魚隨時趨水而來, 故名躡水也. 今人網捕之時, 遇其群來, 得魚如山, 舟不勝載. 而海州·興陽網捕異時者, 以其隨時躡水也…… 『자산어보』

[4-b] 石首魚[조기] 身扁鱗細, 脊淡黑, 通身黃白滋潤. 首有白石二枚, 瑩潔如玉. 『嶺表錄』謂之石頭魚, 『浙志』謂之江魚, 『臨海異物志』謂 “小者爲躡水, 其次名春水”, 皆其一名也. 田九(汝)成 『遊覽志』云: “每歲四月, 來自海洋, 綿亘數里, 其聲如雷. 海人以竹篇探水底, 聞其聲, 乃下網截流取之. 潑以淡水, 皆圍圉無力. 初水來者佳, 二水三水來者, 魚漸少而味漸減.” 其言來候與漁法, 皆與我東合. 我東東海無之, 惟產西南海. 穀雨前後, 成羣作隊, 自南迤西. 故其漁之也, 始自湖南之七山, 盛于海西之延平海, 終于關西之德島前洋. 過此以往, 入登萊之海矣. 商旅雲集, 船輪之四, 鹽鯧爲蠶, 塩醢爲醢. 流溢國中, 貴賤共珍之. 蓋海族之最繁最美者也. 『전어지』 「어명고」

『자산어보』의 서술은 기본적으로 전반부에서 흑산도 지역에서 본 추수어(躡水魚)에 관한 모양, 속명, 어획방법 등 정보를 기록하고 후반부에서 ‘안(案 혹은 按)’의 형식으로 여러 문헌을 통해 어명을 고증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주목할 것은 『자산어보』에서 기본적으로 ‘案·按’ 자 앞에 청(淸) 자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청(淸)은 정약용의 제자인 이청을 가리키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청이 정약용의 부탁으로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교정하게 되고 정약전은 관찰과 기록을, 이청은 문헌 고증을 각각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² 그렇다면 유배지에서 어류를 관찰하고 기록한 정약전의 지식 생산 모습은 김려의 그것과 비슷한 면이 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이름을 모르는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은 의욕에서 각자 유배지의 해양생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정리하였다. 그 작업 과정에서 고증은 빠졌고, 단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그리고 현지인들이 알려 준 것만 기록했을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청은 정약전의 『자산어보』를 교정하면서 어명을 고증한 것인데, 이런 이청의 작업은 조선후기 고증학풍의 성행과 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청이 정약전만큼 현장 조사를 할 수 없었을 테니, 현장 조사가 없고 경험적인 지식의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약전의 기록을

42 기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어보』에서 정약전과 이청의 역할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김문기는 정약전이 흑산도 현장에서 관찰한 물고기의 빛깔, 형태, 습성 등을 기록했다면, 이청은 중국 문헌을 중심으로 물고기 기록들을 인용하면서 어명을 고증했다고 본다. 김문기, 「〈자산어보〉와 〈해족도설〉: 근세 동아시아 어류박물학의 갈림길」, 『역사와경제』 제101집(2016), 81쪽 참조. 아울러 정명현이 보기에 정약전이 쓴 『자산어보』가 본래 2권뿐이었는데 1822년 이후 나온 이청의 보완본은 3권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청의 교정과 보완은 정약전 사망한 이후 이청의 독자적인 별개의 작업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전·이청(저), 정명현(역), 『자산어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서해문집, 2016), 264~266쪽 참조.

바탕으로 문헌 고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 위 예시에서 이청은 『유람지』에서 적힌 어획 관련 기록을 제시한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그물로 잡을 때 다가오는 추수어 떼를 만나면 물고기를 산처럼 많이 잡아서 배에 이루다 신지 못한다. 해주와 흥양에서 시기를 달리 해서 그물로 잡는 이유는 추수어가 떼를 따라 물을 쫓기 때문이다”라는 경험적 사실을 덧붙여, 『유람지』에 기록된 추수어의 ‘떼를 따라 물을 쫓아온다’는 습성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이청 나름의 경험적인 지식이 어보에서 종종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 조사,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 얻은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면 이청이 어명 고증이라는 작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⁴³

한편 『자산어보』의 물고기에 대한 소개와 고증은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기에 두 부분으로 엄연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전어지』 「어명고」에서는 서술상 단절된 느낌을 주지 않는다. [4-b]에서 추수어와 같은 물고기인 석수어(石首魚)를 소개하고 있는데, 서유구는 문헌을 인용하

43 이청이 어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청은 강진 출신이라는 사실이다. 이청은 1818년에 강진 유배가 풀린 정약용을 따라 서울로 갈 때까지 전남 연해 지역인 강진에서 26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현장에서 어류, 어획 등 지식을 접게 될 기회가 많고 또 그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둘째, 문중양은 이청의 저술 『井觀編』을 분석하면서 이청이 그의 스승 정약용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천문역산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천문 현상과 같은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청은 어류 등 자연 사물에 관한 관찰 활동과 경험적 지식의 축적도 이루었을 것이라 추정하기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문중양,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李晴의 《井觀編》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한국문화』 제37호(2006), 153~154쪽 참조. 셋째, 김문기, 조숙정 등은 이청이 주석한 내용에 흑산도 섬사람이 말한 ‘趙全淡鯊’라는 말이 나온 것을 단서로 삼아 이청이 흑산도를 직접 방문·조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문기, 앞의 논문(2016), 78~79쪽; 조숙정,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기와 《자산어보》에 대한 재검토: 세 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49호(2017), 66~67쪽 참조.

면서 문헌 기록과 조선의 실정에 대한 논평을 적극적으로 끼워 넣었다. 여러 문헌에 적힌 별명을 열거한 뒤 ‘이들이 모두 같은 이름이다(皆其一名也)’라는 논단을 내린 점에서 볼 때 문헌 고증을 통해 파악한 물고기 실체와 명칭의 대응관계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아울러 『자산어보』에서와 같이 『유람지』의 기록을 인용한 다음 석수어의 습성과 분포, 이용 방법과 가치에 관한 조선의 실정을 훨씬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고증이라기보다는 이미 고증이 완료된 뒤에 관련 팩트 즉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보태는 일종의 디테일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자산어보』와 「어명고」의 어류 고증은 모두 경험적 지식과 문헌 지식을 아울러 동원한 작업이라 하겠으며, 그러한 고증을 통해 물고기의 실체, 특히 조선 역내에 존재하는 물고기의 실체와 해당 물고기의 이름 간의 대응관계를 성립시켜 나갔음을 알 수 있다.

IV. 어명 고증의 기능과 동아시아의 지식 유통

어명 고증은 물고기의 이름과 물고기의 실체 사이의 대응관계, 그리고 이러한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구축한 지식 체계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증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조선후기의 고증학은 청대 고증학에 영향을 받았으며, 또 어보에서 중국 문헌을 위주로 참고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헌도 적극 활용하였다. 그래서 어보의 고증 작업은 이름과 실체의 대응관계를 토대로 실체를 증험하는 동시에 외래 지식과 토착 지식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어명 고증의 핵심 기능은 기존 문헌에서 통용되는 물고기의 한자 이름이 조선에서 속명으로 불리는 해당 물고기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과 글이 일치하는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한문과 국어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의 명칭과 실물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로 인한 오류도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⁴⁴ 물고기 이름의 경우도 그러했다. 중국 문헌에 적힌 물고기의 한자 명칭은 조선과 일본에서,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과 일본의 지식층에서 통용되는 한편, 전래 과정에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칭 사용에 있어 오류가 생기기 나름이라는 것도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물고기의 한자 명칭이 해당 물고기의 조선 속명과 같은 것인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헌 고증이 필요할 것이다.⁴⁵

조선 속명이 위어(葦魚)로 되어 있는 물고기에 대한 문헌 고증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5-a] 魴魚[俗名葦魚] 大一尺餘. 類蘇魚而尾甚長. 色白, 味極甘醜. 鱸之上品. ○
 晴案: 今葦魚產於江, 蘇魚產於海, 是一種屬, 卽魴魚也. 『爾雅』「釋魚」云: “鯢, 鱣刀.”
 郭注云: “今之鯢魚也, 亦呼爲魴魚.” 『本草綱目』: “鱣魚, 一名鯢魚, 一名鯢魚, 一名鱣
 刀, 一名魴魚, 一名鱣魚. 『魏武食制』謂之望魚.” 邢昺云: “九江有之.” 李時珍云: “鱣生
 江湖中, 常以三月始出, 狀狹而長薄, 如削木片, 亦如長薄尖刀形. 細鱗白色, 肉中多細
 刺.” 『淮南子』曰: “鯢魚飲而不食.” 又『異物志』云: “鱣魚, 初夏從海中泝流而上. 長尺

44 丁若鏞, 『與猶堂全書』(14), 跋, 「竹蘭物名考」. “中國言與文爲一, 呼一物便是文, 書一物便是言, 故名實無舛, 雅俗無別, 東國則不然.”

45 徐有榘, 『佃漁志』(4), 「魚名攷」, 辨樂浪七魚·跋尾. “而華人之記載, 我國山川人物, 往往訛謬錯見, 其指東爲西換, 甲爲乙者, 不可更僕數. 況當三韓四郡, 分裂之際, 草昧止文獻未備, 洵上之方言無稽, 且距皇都六七千里. 而遙著書者, 區區擬拾於重譯之餘, 又安得不十爽其三也. 自茲以降, 徐兢圖經, 但詳儀章, 董越詞賦, 寥寥數篇, 皆不槩及於草木魚鼈之產. 而我東士大夫, 又不屑爲箋蟲魚註. 爾雅之學, 一任夫漁工樵豎之哇哩相傳, 莫有能引古證今, 起而是正者.”

餘, 腹下如刀, 是鱠鳥所化.” 據此可知葦魚卽魴·鯊也. 『譯語類解』謂之刀鞘魚. 『자산어보』

[5-b] 鱣魚[위어] 『本草』所謂鱣, 卽今俗所謂葦魚也. 今葦魚, 狹長扁薄, 細鱗色白, 恰似尖刀之新發於硯, 與『本草』所謂“鱣魚, 狀狹而長, 鱗細而白, 如薄尖刀形”者合. 今葦魚, 口吻左右有兩硬刺, 行則貼在兩頰, 止則住在沙泥, 如船之碇, 與『本草』所稱“鱣魚, 吻上有二硬鬚”者合. 他如腮下有長鬚如麥芒, 腹下有硬刺如利刀, 近尾有短鬚, 肉內多細刺. 凡『本草』形鱣魚者, 節節與今之葦魚吻合, 葦魚之爲鱣魚, 蓋無疑矣. 產江湖通海口處, 每歲四月沂流而上, 漢江之幸州, 臨津之東坡灘上下流, 平壤之大同江最多, 過四月則無. 郭璞『江賦』: “鱣·鯊順時而往還.” 鯊卽指此魚也. ○按: 『爾雅』曰: “鯧, 鯧刀.” 註云: “今之鯊魚, 亦呼爲魴魚.” 『淮南子』曰: “鯊, 飲而不食.” 『說文』亦云: “鯊, 飲而不食, 刀魚也.” 『異物志』謂之鱣魚, 魏武『食制』, 謂之望魚, 皆其一名也. 若『東醫寶鑑』謂“鱣魚卽葦魚”則誤矣. 『전어지』 「어명고」

『자산어보』와 『전어지』 「어명고」에서는 각각 ‘도어(魴魚)’와 ‘제어(鱣魚)’라는 한자 이름을 표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헌 고증을 통해 도어와 제어는 조선의 ‘위어’에 해당되는 말임을 증명하였다. [5-a]에서 보이듯이 정약전이 도어에 대해 극히 간략하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청은 여러 문헌에 적힌 이칭(異稱)들을 열거하면서 위어(葦魚)가 곧 도어(魴魚) 혹은 제어(鯊魚)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청은 위어가 매년 초여름에 회유하고[初夏從海中沂流而上], 먹지 않고 마시기만 하고[飲而不食], 칼처럼 가늘고 길게 생겼다[如長薄尖刀形]는 특징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러한 특징이 반드시 앞에 정약전의 서술을 입증해주거나 뒷받침해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청이 위어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위어에 대한 고증에서 그의 경험적인 지식이 드러나지 않았다. 추측컨대 정약전이 현장에서 관찰한 위어를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의거하여 도어와 대응시킨 다음, 표제에 도어와 위어를 ‘魴魚[俗名葦魚]’와 같이 붙여서 적은 이상,

이청은 정약전이 이미 상정한 이 대응관계에 대해 형식적인 고증을 해주었을 것이다. 이같이 이청 고증의 타당성 여부는 정약전이 기록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고 명확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관찰자와 고증자의 주체가 다르지만 정약전이 상세히 기록해 둔 경험적 지식은 문헌 지식과 충분히 상호작용할 만큼 이청이 고증 작업을 제대로 마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한편 [5-b]에서 서유구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위어의 생물학적 형상 특징과 습성을 『본초강목』과 『강부』의 관련 기록과 일일이 비교하면서 위어는 곧 제어(鱗魚)와 제어(鰲魚)임을 확인해 낸 다음, 위어를 가리키는 여러 이칭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조선의 『동의보감』에서 시어(鱒魚)를 위어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오류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서술의 효과로 보아 서유구의 고증은 현장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과 문헌에서 얻은 지식을 본인이 직접 결합시킴으로써 『자산어보』의 그것보다 설득력 있게 제어와 위어의 대응관계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어에 관한 생태학적 지식도 활성화시켰다.

[5-c] 鱒魚[위어] …… 又案：農巖金公尺牘，有杏湖鱒魚之語，此亦以葦魚爲鱒魚矣。余嘗據『爾雅』注·本草諸家謂：“鱒魚卽今之葦魚矣。”①後考『和漢三才圖會』云：“鱒以八九月出，大者三四尺，小者一二尺，似海鰻，而薄扁，青色帶白，如塗雲母，卽其脂也，刮去白脂，然後可熬可炙，肉內小骨橫，于脊如篋櫛。”又云：“鱒本無鱗。”『本草』言有細鱗者非也，其言時候大小形狀，皆與今葦魚抵牾，此殊可疑。豈日本鱒魚自是一種耶？②又案：『史記』「貨殖傳」：“鮐鯊千斤。”蓋謂鮐鯊之乾絕爲鯊者，其數千斤耳。今葦魚肉薄多刺，只可作膾炙，未嘗作鯊，此又可疑。豈史遷所謂鯊，與今刀魚同名異實，而註者誤以刀魚爲鯊耶。然拾葦魚而別求刀魚，則不可得矣。姑且存疑，以俟勘証。若『東醫寶鑑』謂“鱒魚卽葦魚”則誤矣，說鱒魚。『난호어목지』「어명고」

주목할 것은 『전어지』 「어명고」 제어(鱈魚) 기사는 사실 『난호어목지』 「어명고」 제어(鱈魚) 기사의 내용을 옮겨 쓴 것인데 거기에 [5-c]와 같이 빠진 부분이 있다. 서유구는 이미 ‘조선의 위어가 바로 제어다’라는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같은 이름을 가지지만 조선의 위어에 해당되지 않을 듯한 다른 물고기 기록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결론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① 부분에서 『화한삼재도회』에 실린 일본의 제(鱈)는 청색이며 매년 8월에 나타나고 비늘이 없다는 점에서 조선의 제어(위어)와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본에만 있는 종류인지를 의심하였다.⁴⁶ ② 부분에서 『사기』에서 말한 태제(鮫)가 말린 제어(鱈魚)로 보이는데, 제어(鱈魚)가 위어의 이칭이지만 여기의 제어(鮫魚)가 과연 조선의 위어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위어가 살이 얇고 가시가 많으므로 건어보다 항상 회로만 제작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의 위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짐작된 일본의 제(鱈)와 중국의 태제(鮫)를 거론하면서 조선의 위어와 이들과의 대응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문점을 잠시 남겨두고 나중에 교감하여 검증기를 기다린다[姑且存疑, 以俟勘証]”는 서유구의 말로 보아 이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전어지』 「어명고」에는 이 내용들이 삭제되었다. 옮겨 쓸 때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어지』 「어명고」 편찬 과정에서 그 의문점들을 풀고 난 뒤 ‘조선의 위어가 바로 제어(鱈魚)다’라는 문맥을 살려서 독자를 헛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 조선의 위어에 해당되지 않는 물고기에 관한 외국의

46 김문기는 『화한삼재도회』의 鱈魚[たちいお]가 실제 갈치(학명: *Trichiurus japonicus*)를 가리키는데 웅어를 말하는 조선의 제어(鱈魚)와 다른 것으로 밝혔다. 『화한삼재도회』에서 한자 ‘鱈魚’로 갈치를 표기하는 것은 『본초강목』의 물명을 일본 최초로 변증했던 하야시 라잔(林羅山)이 그의 『다식편』에서 鱈魚에 대해 ‘타치우오(たちうお)’라는 갈치의 음을 달은 데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라 한다. 김문기, 앞의 논문(2017), 139~140쪽 참조.

언급들을 삭제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동의보감』에 적힌 ‘시어(魴魚)가 바로 위어다’라는 언급이 틀렸다는 판단은 살렸는데, 이것은 아마 외국의 용례보다 조선의 용례에 더 초점을 두려는 실용주의적 정서에서 나온 듯하다.

이처럼 서유구는 『본초강목』, 『화한삼재도회』를 위주로 참고하면서 조선, 중국, 일본에서 각각 제어(鱈魚)로 지칭하는 물고기 사이의 대응관계를 증명했다. 한 사례를 더 들자면 당시 조선, 중국, 일본에서 모두 ‘청어(靑魚·鯖魚)’로 표기되는 물고기가 있는데, 서유구는 중국의 청어가 민물고기이고 조선의 청어가 바닷물고기라는 점에서 중국과 조선의 청어가 ‘이름은 같으나 종류가 다르다(同名異實)’는 결론을 내리고, 이어서 일본에서 말한 ‘수만 마리가 바다 물결에 떠다닌다’는 청어가 바로 조선의 청어라고 하였다.⁴⁷ 비록 일본 청어와 조선 청어가 같다는 판단은 틀렸지만⁴⁸ 서유구는 기존에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던 ‘중국-조선’의 어명 고증을 넘어서 ‘조선-일본’의 어명 고증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이다. 이것은 서유구가 동아시아 3국의 지리적인 위치의 인접성과 해양 물산의 유사성을 인식한 데⁴⁹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국 문헌에 대한

47 徐有榘, 『佃漁志』(4), 「魚名攷」, 靑魚[비웃]. “『本草綱目』云: ‘靑亦作鯖, 以色名也.’ 此『本草』所載靑魚也. 我國靑魚異於是, 不產江湖間 [...] 與『本草』靑魚同名異實, 故『東醫寶鑑』註『本草』靑魚亦云: ‘非我國之靑魚也.’ 惟『和漢三才圖會』云: ‘鯖形類鮫而鱗細, 大者一尺四五寸, 背正靑色, 中有蒼黑微斑文, 如繩纒然. 尾邊兩兩相對有刺鬚. 其肉甘而微酸, 易餒經宿者, 令人醉. 四月中, 數萬爲浪所漂, 不釣不網, 亦可獲取.’ 其所云數萬爲浪所漂者, 非我國靑魚, 何以有此. 是知我國及日本鯖魚同, 是海產. 而『本草』所言, 另是江湖產一種也.”

48 김문기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화한삼재도회』에 나온 일본의鯖(혹은靑魚)은 고등어(학명: *Scomber japonicus*)였고 한반도의 청어(학명: *Clupea pallasii*)와 전혀 다른 종류였다. 한편 당시 일본에서 청어(학명: *Clupea pallasii*)는 鯖이나 鯖란 한자명을 사용했다. 하지만 서유구는 일본의鯖과 조선의 청어가 같은 것이라고 잘못 인식했다. 김문기, 「청어, 대구, 명태: 소빙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 『대구사학』 제115권(2014b), 201~214쪽; 김문기, 앞의 논문(2017), 145~146쪽 참조.

49 徐有榘, 『蘭湖漁牧志』, 「魚名攷」, 論海魚未驗·總論. “我國三面環海, 東隣日本, 西接遼海.

고증을 통해 외국 물고기의 지식을 획득하는 동시에 물고기 이름과 그 실체가 대응되지 못했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⁵⁰ 『전어지』 「어명고」 뒤의 ‘잡찬(雜纂)’ 부분에서 서유구가 각각 ‘낙랑에서 난다고 하는 일곱 종의 물고기[樂浪七魚]’, ‘바닷물고기 중 확인해 보지 못한 물고기[論海魚未驗]’, ‘중국 물고기 중 보지 못한 물고기[論華產未見]’, 그리고 ‘조선 물고기 중 보지 못한 물고기[論東產未見]’에 대해 문헌 고증을 통해 논의하였는데, 이와 같은 고증 대상들은 모두 문헌에 나오지만 서유구의 기존 경험적 지식으로는 그 물고기 이름을 어떤 실체에 대응시켜야 할지 끝까지 분별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에 적힌 물고기의 한자 명칭과 조선에서 실제로 해당 물고기를 가리키는 속명 사이의 대응관계를 증험하는 것이 어명 고증의 핵심 기능이며 주요 목표였다. 핵심 기능과 주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저자들은 어명 고증을 통한 여러 세부적인 기능과 목표도 달성하였다. 기록에 적힌 한자 명칭이 조선의 해당 물고기와 일치할 경우 어명 고증은 주로 어류 지식을 더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이명(異名)의 열거다. 앞 위어(鰲魚)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위어가 곧 도어(魴魚) 혹은 제어(鱗魚)인 것을 증명한 이상, 문헌에 적힌 여러 한자 이명도 즉시 위어와 연관되며, 이는 위어를 가리키는 기호 체계를 확충한 것이었다. 그런데 물고기에 대한 설명에서 보통 두 가지의 이명이 거론되는데, 하나는 조선의 토속어 이명이

潮汐之所往來，魚鼈之所孳育，初無有方域之限，則一切魚族之出遼海·日本者，皆吾東產也。”

50 위의 책, 論海魚未驗·總論. “然今以本草諸家及『和漢三才圖會』, 按名考驗, 則其彼有而此無者十居二三, 何哉. 蓋未嘗無之, 而漁工海夫, 不能言其名. 學士大夫, 又不肯留心勘驗, 遂疑其無耳. 今並列其形名色狀, 以備詢考證正.”; 論華產未見·總論. “諸雅本草諸書, 凡言, 魚族之在處有之者, 皆古今之所通. 有南北之所同產也, 寧獨吾東無之. 祇緣方音哇哩, 名稱猥雜, 莫可辨, 其在本草爲何魚耳. 今撮錄梗槩, 以備按名考驗.”

고 다른 하나는 문헌에 기록된 한자어 이명이다. 『전어지』 「어명고」에서 복(河豚)에 대한 설명에서 진어(噴魚), 기포어(氣包魚), 취토어(吹吐魚) 등 복의 생태학적 특징에 근거해 지어진 속명 이칭들을 소개하는 한편, “『산해경』에서 적규(赤鯧)를, 『포자론』에서 규어(鯧魚)를, 일화자가 호어(鮑魚)를, 『축도부』에서 후태(鰾魚)를, 『본초집해』에서 후이(鰾魚)를 부른다”라고 덧붙였다.⁵¹ 속명 이칭에 대한 소개는 임의적으로 이뤄진 반면에 문헌의 한자어 이칭을 제시하는 일은 저자의 고증 작업을 걸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전어지』 「어명고」에서 ‘魷(조선은 水魚)’, ‘烏貝(조선은 蚌)’, ‘滿方魚(조선은 靑障泥魚)’ 등 일본에서 부르는 말도 종종 소개되는데, 이것도 역시 서유구가 『화한삼재도회』를 참고하면서 일본의 속명 이칭을 알게 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명 이칭들을 열거하면서 해당 물고기를 지칭하거나 해당 물고기 실체에 대응되는 기호 체계를 다양하게 확충하였고, 같은 물고기에 대해 조선,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 각지의 토착적 지식을 하나의 물고기 실체를 통해 연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응 관계가 증명된 경우 문헌 고증은 현장에서 얻지 못하거나 기록할 때 누락된 경험, 정보들을 역사적 지식이라는 형태로 보완해 준다. 고증을 통해 보완된 정보는 대체로 물고기의 생태학적 정보, 생활 정보 그리고 문화적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태학적 정보는 주로 물고기의 모양, 습성, 분포지역 등에 관한 것이다.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은 준치(鱖魚)의 모양에 대해 “크기는 2~3척이고 몸통은 좁고 높으며, 비늘은 크고

51 위의 책, 河豚. “身促肚飽, 口小尾禿. 有齒無鬣, 背青黑有黃文, 腹下白而不光, 觸物則噴怒, 澎漲如氣毬, 浮於水上, 故一名噴魚, 一名氣包魚, 一名吹肚魚. 『山海經』所謂赤鯧, 『論衡』所謂鮭肝死人, 雷公『炮炙論』所謂鯧魚, 日華子所謂鮑魚, 『蜀都賦』所謂鰾魚, 『本草集解』所謂鰾魚, 皆此魚也.”

가시가 많으며 등이 푸르다”고 설명하였는데, 고증 부분에서 이청은 이시진의 말을 인용하여 “은처럼 흰색이고 살 속에 털 같은 잔가시가 많다”는 생물학적 특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⁵² 또 『전어지』 「어명고」의 상어[沙魚]에 대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바다 상어는 모두 태생(胎生)이어서 그 새끼가 어미의 뱃속을 드나든다”고 하면서 상어의 출산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자가 직접 바다 속에서 보고 확인할 수는 없었을 테니 다른 데서 얻은 정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에 『유양잡조』와 『남월지』에 적힌 “상어 새끼는 아침에 어미의 뱃속을 나갔다가 저녁에 배로 돌아온다”는 괴이한 이야기를 인용하며 믿은 것을 보면, 서유구가 직접 보지 못한 태생이라는 수의학적 특징을 문헌을 통해 알았을 것으로 짐작된다.⁵³

생활 정보로는 주로 물고기의 어획, 의약, 이용 방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어지』 「어명고」에서 고래[鯨]를 소개할 때 조선인이 고래를 잡는 기교가 없다고 하면서 『화한삼재도회』에 적힌 일본인의 고래 포획방법과 그의 이빨, 수염, 뼈, 껍질, 고기 등의 이용방법을 제시하였다.⁵⁴ 또 문화적 정보는

52 丁若銓, 앞의 책, 鱈魚, “俗名蠡峙魚. 大二三尺. 體狹而高. 鱗大而多, 背青. 味甘而清. 穀雨後, 始漁於牛耳島. 自此以漸北, 六月間始至於海西. 漁者, 追而捕之. 然晚不如早. 小者大三四寸而味甚薄. ○案 [···] 李時珍云:‘鱈, 形秀而扁, 微似魴而長, 白色如銀. 肉中多細刺如毛. 大者不過三尺. 腹下有三角硬鱗如甲. 其肪亦在鱗甲中.’[出『本草綱目』] 此則今俗所稱蠡峙魚也.”

53 徐有渠, 『蘭湖漁牧志』, 「魚名攷」, 沙魚[사어]. “…… 按 鯨有二焉, 江川間小鯨, 以張口吹沙而名鯨, 海上大鯨, 以皮有沙珠而名鯨. 小鯨一名鮫, 大鯨有鮫·鰭諸名, 大小名稱, 各異焉也. 凡海鯨者, 皆胎生, 而其子出入母腹中. 『酉陽雜俎』云, 章安縣有出入鰭腹子, 朝出索食, 暮入母腹. 『南越志』并云, 環雷魚, 鰭魚也. 腹有兩洞, 貯水養子, 一腹容二子, 子朝從口出, 暮還入腹, 皆指此也.”

54 위의 책, 鯨[고래]. “…… 『和漢三才圖會』有世美·座頭·長須·鯨鯨·眞甲·小鯨等名, 大者無慮三四十尋, 最小者數三丈. 崔豹『古今注』謂, 其大千里, 羅願『爾雅翼』·王思義『三才圖會』, 皆沿其說. 蓋鯨處大海深洋, 其出有時, 非生長海國, 則罕有目睹者. 中國人徒憑海外傳聞, 無恠其有此張皇荒唐之言也. 日本人有擲鏑捕鯨法, 而我國漁夫無此技. 一得沙上自死鯨, 則齒鬚筋骨皆爲器用. 皮肉熬之取油, 鯨之大者, 得油數百斛, 利益一方.”

주로 어명의 출처 관련 역사 전고다. 『전어지』 「어명고」에 현재 확인되지 않은 가사어(袈娑魚)라는 물고기의 기사가 있는데, 『함양지』를 인용하며 함양부 남쪽에 있는 용유담에 물고기가 있고 그 등에 가사와 같은 문양이 있으므로 가사어라고 부른다고 그 이름의 출처를 밝혔다.⁵⁵ 또한 외국 문헌을 고증함으로써 특정 물고기에 관한 외국의 정보를 얻기도 했다. 서유구는 중국인들이 해삼(海參)을 몹시 좋아하므로 어부들 중 중국에 수출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금령을 무릅쓰고 해삼을 채취하는 자가 많다는 점을 들어 중국에 해삼이 없다고 짐작하였는데, 『화한삼재도회』에서 중국에 해삼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을 보니 이것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외국에 가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어류 지식 획득은 거의 문헌 고증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기록에 적힌 한자 명칭과 조선의 해당 물고기가 서로 대응됨이 확실한 경우 문헌 고증을 통해 그 물고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고 수정했다. 이러한 수정들은 역시 물고기의 모양, 습성 등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징에 대한 기록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고증과 수정은 옛날 사람들의 물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쪽으로 실현되었다. 조벽공의 『잡록』에서 “뱀장어는 숫놈은 있지만 암놈은 없다. (뱀장어는) 가물치에게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하여 산란하며 그 치어가 가물치 지느러미에 부착되었다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만리라 한다”라 한 것에 대해 서유구는 『화한삼재도회』를 참고하여 “뱀장어가 보통 4~5월부터 치어를 생기게

55 위의 책, 袈娑魚[가사어]. “『咸陽志』云, 龍游潭在咸陽府南四十里. 潭之兩傍, 巖石平鋪積累, 皆若磨礪然. 水中有魚, 背有紋如袈娑, 故以名.”

56 위의 책, 海參[해삼]. “……華人尤喜之, 每歲燕商, 邠車輸入, 多獲奇羨. 五六月間, 長淵·豐川海邊, 冒禁來採海參者, 皆覺華島人, 而利重不能禁, 意中國所無也. 『和漢三才圖會』云, 海鼠不產中國, 故『食物本草』所謂形如驢馬陰莖, 『五雜俎』所謂狀如男子勢者, 皆但形容熬乾海鼠, 而『本草綱目』則以土肉系之怪獸類之下, 不知其爲海魚也, 其言信矣.”

하므로 반드시 모든 뱀장어가 가물치에게 제 그림자를 이용하여 알을 낳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⁵⁷ 또 가자미에 대해서 『이아』를 비롯한 고금의 여러 문헌에서 모두 “가자미는 모두 눈이 하나뿐이므로 반드시 2마리가 나란히 붙어 있어야 비로소 갈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서유구는 이를 직접 확인해 보고, 가자미가 실상 눈이 2개이며, 또한 굳이 2마리가 나란히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중국 사람들이 대개 가자미를 좀처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아』의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답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⁸

이와 같이 어명에 대한 문헌 고증은 물고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경로이며, 한편으로는 기존 문헌에서 물고기에 대해 잘못 기록한 것들, 즉 오류 자체를 발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어보에서 수정한 오류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문헌을 출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 수정은 중국 문헌에 익숙한 조선 지식인들이 문헌 고증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직면한 과제이며, 또 이들 지식인에게 조선 물고기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더 많이 수집하고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였다. 결국 문헌 기록에 적힌 물고기 정보에 대한 수정은 정약전, 이칭, 서유구 등 조선 지식인들이 경험적 지식과 문헌 지식,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외래 지식과 조선의 토착 지식을 충분히 동원하고 기존의

57 위의 책, 鰻鱺魚[배암장어]. “又鰻鱺魚，狀如鰻而腹白，故一名白鰻。又似蝮蛇，故亦稱蛇魚。背有黃脉者曰，金絲鰻。趙辟公『雜錄』云，鰻鱺有雄無雌，以影漫于鱧魚，則其子皆附于鱧鬚而生。故謂之鰻鱧。然以今驗之，縵(鰻)自於四五月生子，初生細如針芒，日本人謂之針縵(鰻)鱧，未必皆影鱧而產也。縵(鰻)於冬春蟄穴中，至五月始出游，此時取者味美。在處有之，江中大者，長或二三尺。肉繁而多脂膏，燻炙香美，不專以其殺蟲·已風之功而貴之也。”

58 위의 책, 鰈[가자미]. “……古今諸家皆謂鰈皆一目，須兩魚並合，乃能行。其說蓋本諸『爾雅』，東方有比目魚，不比不行之文。然以今驗之，鰈實兩目，亦未必相比而行，疑『爾雅』所著，自是一種也。[…]余意『爾雅』所著，東方比目魚，南方比翼鳥，西方比肩獸，北方比肩民，皆屬荒服異聞，非中國所恒有，而解之者，誤以今之鰈魚實之。然鰈本東海之產，華人之所未慣見，故本草諸家，仍襲郭解，謂鰈真一目，不自知其爽實也。”

지식과 새로운 경험 지식을 조율한 결과였다.

한편 어보의 고증 작업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한자를 공유하며 지식 체계를 구축해 가던 동아시아에서 대부분 물고기의 한자 명칭은 일찍부터 중국 경전의 전래에 따라 조선과 일본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조선후기 어보들은 이러한 한자 명칭을 수용하는 동시에 중국 문헌을 중심으로 구축된 어류 지식 체계에 대한 검토와 재구축을 시도했던 듯하다. 중국의 문헌은 한자 어명에 기초하여 어류 지식의 기본적인 틀을 설정했고 조선 지식인들이 또한 이 틀을 수용했지만, 그러한 틀은 중심부에서 주어진 인식의 원칙이라기보다 일본 문헌과 함께 어명 고증에 있어 비교, 참조 내지 비판의 대상이 된 듯하다. 다시 말해 고증에서 원용한 동아시아 문헌 기록들은 본국의 어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동원할 만한 지적 자원으로 간주되며, 어보 저자들이 외래 지식과 토착 지식, 문헌 지식과 경험적 지식 사이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자연이라는 사물을 제대로 이해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지식의 유통이라는 것이 항상 진리의 유통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서도 어명 고증에서 발생한 오류들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서유구는 『화한삼재도회』의 鱒(고등어)을 조선의 청어로, 蠶螭(진주조개)을 조선의 함진조개로 잘못 인식하거나 『화한삼재도회』의 鱒(갈치)가 조선의 제어(위어)와 같은 것인지 의혹스러워하는 등 동아시아 지식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류에 관한 지식 오류가 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유통되며 외국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래 문헌 지식의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오류’로 오해하는 문헌 지식을 억지로 수정하는 것 자체도 오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지식 유통의 확대에 따라 계속 정보를 보완하고 오류를 교정해 나갈 수도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한자 중심의 지식 체계에서 문헌의 유통을 바탕으로 하는

어류 지식의 유통은 오류의 유통과 상호작용하고 있고 오류의 유통도 본래 지식 유통의 실상이다. 어명 고증에서 오류의 발생은 김문기가 말한 본초서, 명물서 등 문헌들을 거쳐 누적된 ‘오류의 권위’⁵⁹로 인한 것이기도 하며, 인적 유통이 문헌 유통에 뒤쳐진 상황에서 외국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충분히 수용·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동아시아 지식 유통과 오류 유통의 상호관계와 작동 양상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한다.

V. 맺음말

조선후기 지식인 사이에서 ‘실학’적 분위기와 함께 명물·고증학이라는 학문적 관심이 생겨났고, 그 소산으로 19세기 초반에 김려의 『우해이어보』, 정약전의 『자산어보』 그리고 서유구의 「어명고」 등이 출현했다.

이 어보들은 물고기의 이름을 선정해 표제로 적으면서 모두 한자를 사용하였는데, 다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물고기에 대해 기존 기록이나 생활에서 통용된 한자 명칭을 선택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물고기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차자 표기와 제자(製字)의 방법으로 한자 명칭을 만들었다. 이러한 작명 방식은 기존 한문에 기반한 지식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문 문해력이 있는 지식인 계층을 위한 명물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똑같이 지식인과 관리들을 어보의 독자층으로 상정했으나 여러 한자 명칭 중에 택일의 기준으로서 유구는 정약전보다 조선 실정의 반영과 이해 편리성의 제공을 위한 더 많은 고려를 보여 주었다.

59 김문기, 앞의 논문(2017), 163~168쪽 참조.

어명에 대한 고증은 원래 물고기의 이름과 실체가 서로 대응되는지 여부를 증험하는 것인데, 조선의 어보에서 한자 명칭을 표제로 사용하는 동시에 조선에서 쓰인 속명도 적었기 때문에, 어명에 대한 고증은 어떤 한자 명칭으로 불리는 물고기가 조선 속명으로 불리는 또 다른 물고기와 서로 같은 종류의 물고기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을 주로 행했던 듯하다. 이러한 고증 작업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은 물고기의 한자 명칭이 나오는 여러 문헌들을 참고·인용해야 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와 서유구의 「어명고」에서 참고한 문헌은 중국 문헌을 위주로 하여 100종 이상을 넘었으나 대부분의 인용 사항은 재인용이나 간접 인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지만 재인용한 구절의 원래 출처, 간접 인용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헌 고증의 양상이 실제로 더욱 복잡해졌다. 재인용은 동아시아 고증학 고유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고 간접 인용의 경우 저자가 고의로 문헌 표제를 뺐다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일치한다고 판단되는 문헌 기록의 해당 내용을 자신의 것처럼 내면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 고증을 통해 기록에 적힌 물고기와 조선에서 속명으로 지칭하는 해당 물고기 사이의 대응관계를 증험하는 것이 어명 고증의 목표이자 핵심 기능이다. 따라서 고증을 통해 물고기 이름과 그 실체를 대응시킬 만큼의 설득력을 얻으려면 문헌에서 얻은 지식의 신뢰도보다 저자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적 지식과 그러한 지식을 어보에서 제시하는 일이 몹시 중요했다. 문헌 고증은 경험적 지식과 문헌 기록 사이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거쳐야 그 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물고기 이름과 실체 사이의 대응관계가 성립된다면 문헌 고증을 통해 자신이 현장에서 직접 얻지 못한 경험적 지식들을 보완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적 지식에 의거하여 기존 문헌에서 잘못 기록된 정보를 수정할 수도 있었다.

한자 명칭을 사용하고 조선, 중국, 일본 세 나라의 문헌을 참고한 어보들에서는 동아시아 물고기 지식의 유통 양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일단 중국의 『본초강목』을 주로 참고·인용한 이상 중국의 물고기 지식을 많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유구의 경우에는 『화한삼재도회』를 참고하면서 전에 몰랐던 일본의 물고기 지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론된 중국 물고기에 관한 정보를 또한 수용하면서 중국의 물고기 지식에 수정을 가하거나 의문을 품고 재인식을 하고 새롭게 물고기를 분별하기도 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문헌에서 얻은 지식을 정합·처리·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보 저자의 주체적 판단이 계속 개입되고 있었고, 외래 지식을 소화하면서 그들은 토착 지식과의 조율을 도모하였다. 비록 중국과 일본 문헌에 나오는 어류 지식을 점유·처리·재전달하는 과정에 착오가 적지 않았지만 지식 오류의 유통자체, 그리고 인지적 오류에 숨어진 어보 저자의 고심도 동아시아 지식 유통의 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조선후기 어보들의 명물고증 작업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다식과 훈고라는 박물적 전통을 계승한 지적 활동인 동시에, 당시 자연 사물에 대한 관심에 따른 경험세계와 학문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 간의 조화, 그리고 동아시아 서로 다른 지역 인식에 따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현하는 등 시대 정신을 보여준 일면도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蘭湖漁牧志』, 『論語』, 『濶庭遺藁』, 『東洋水産新聞(朝鮮水産新聞)』, 『方言』, 『宋子大全』, 『與猶堂全書』, 『倭漢三才圖會』, 『林園十六志』, 『茲山魚譜』, 『才物譜』.

2. 단행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한국문화사대계(5)』.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9.

김려(저), 김명년(역), 『(한국최초의 어보)우해어보』. 서울: 한국수산경제, 2010.

김문식, 『조선 후기 경학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1996.

서유구(원저), 이두순(평역), 강우규(도판), 『(평역)난호어명고』. 서울: 수산경제연구원BOOKS, 2015.

임원경제연구소, 『임원경제지 전어지(2)』. 서울: 풍석문화재단, 2021.

정약전·이청(저), 정명현(역), 『자산어보: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 파주: 서해문집, 2016.

寺島良安, 島田勇雄·竹島淳夫·樋口元巳 訳注, 『和漢三才図会(7)』. 東京: 平凡社, 2005.
揚之水, 『古詩文名物新證』. 北京: 紫禁城出版社, 2004.

3. 논문

구만옥, 「조선 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실학'의 문제」. 『한국실학연구』 제36권, 2018, 637~636쪽.

김근수, 「한국실학과 명물도수학」. 『한국학』봄호·통권 제12호, 1982, 86~97쪽.

김동전·백종진, 「〈新增東國輿地勝覽〉 '제주목' 기사의 해양생물과 〈자산어보〉」. 『인문학연구』 제13집, 2012, 49~77쪽.

김문기, 「동아시아 해양어류지식의 역사: 어보 출현 이전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제41권, 2014a, 107~150쪽.

_____, 「청어, 대구, 명태: 소빙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 『대구사학』 제115권, 2014b, 195~257쪽.

_____, 「〈자산어보〉와 《해족도설》: 근세 동아시아 어류박물학의 갈림길」. 『역사

- 와경제』 제101집, 2016, 67~132쪽.
- _____, 「〈전어지〉의 어류박물학과 《화한삼재도회》」. 『명청사연구』 제48권, 2017, 115~183쪽.
- 김우정, 「《우해이어보》의 성격에 관한 재론」. 『해양문화재』 제15호, 2021, 29~50쪽.
-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명물학의 전개와 성격」. 『한국학연구』 제31권, 2013, 541~572쪽.
- 문중양, 「19세기의 호남 실학자 李晴의 《井觀編》 저술과 서양 천문학 이해」. 『한국 문화』 제37호, 2006, 125~156쪽.
- 서경요, 「조선조 후기 학술의 고증학적 성격」. 『유교사상문화연구』 제7권, 1994, 501~514쪽.
- 서종태, 「손암 정약전의 실학사상」. 『동아연구』 제24권, 1992, 271~311쪽.
- 안대회,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제69권, 2010, 419~445쪽.
- 이건식, 「이규경의 명물도수지학과 관련된 언어와 문자 자료에 대하여」. 『진단학보』 제121호, 2014, 141~170쪽.
- 정명현,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담긴 해양 박물학의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조숙정,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기와 《자산어보》에 대한 재검토: 세 가지 논쟁점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제49집, 2017, 41~72쪽.
- 조창록, 「《林園經濟志》를 통해 본 徐有築의 일본 인식: 《和漢三才圖會》를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78권, 2012, 103~129쪽.
- _____, 「김려의 《우해이어보》와 《자산어보》·〈전어지〉의 비교 연구」. 『대동한문학』 제47집, 2016, 171~202쪽.
- _____, 「《자산어보》 원편과 이청의 재판집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제33권, 2017, 291~315쪽.
- 최성환,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생활과 저술활동」. 『지역과역사』 제36권, 2015, 207~245쪽.
- 하우봉,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 실학과 황윤석」. 『한국실학연구』 제40권, 2020, 331~368쪽.
- 한미경, 「조선시대 물고기관계문헌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 2009, 237~269쪽.
- 허태용, 「丁若銓의 茲山魚譜 연구」. 『한국인물사연구』 제4호, 2005, 225~249쪽.

국문초록

조선후기 김려의 『우해이어보』(1803), 정약전의 『자산어보』(1814), 그리고 서유구의 『난호어목지』 「어명고」(1820)는 명물·고증을 통해 동아시아의 박물 전통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어보들의 명물·고증 작업은 물고기의 이름과 그의 생물학적 실체 사이의 대응관계를 증험하되 이 대응관계를 바탕으로 한 어류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물고기의 이름을 확정하여 표제로 삼을 때 주로 한자를 사용하였다. 둘째, 『자산어보』와 「어명고」에서 재인용이나 간접 인용 방식을 많이 취했다. 셋째, 중국과 일본 문헌에서 등장한 한자 명칭으로 쓰인 물고기가 조선 속명으로 불리는 또 다른 물고기와 서로 같은 종류인지를 판별하였다. 넷째, 물고기 이름과 실체 사이 대응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중국과 일본 문헌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보완하고 또 기존의 문헌 정보를 수정하였다.

이 작업은 기존의 문헌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조율하고, 그리고 한자 중심의 지식 체계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에서 외래 지식과 토착 지식을 비교·검토하는 과정이었다. 이 작업을 통해 어류 지식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한 것은 저자들이 다시금 지식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동아시아란 정치적 위계질서 다분한 공간 속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지식 구조를 구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2. 12. 21.

심사일 2023. 2. 1.

게재 확정일 2023. 2. 15.

주제어(keywords) 우해이어보(Uhae-ieobo), 자산어보(Jasan-eobo), 어명고(Eomyeonggo), 명물고증(naming and textual research), 지식 유통(knowledge circulation)

Abstract

The “Naming and Textual Research” in the Books of Fishe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the Knowledge Circulation in East Asia

Zheng, Zexing

In the late Chosŏn Dynasty, Kim Ryeo's Uhae-ieobo(1803), Jeong Yak-jeon's Jasan-eobo(1814), Seo Yu-gu's Eomyeonggo in Nanho-eomokji (1820) renewed the natural knowledge tradition of East Asia through naming and textual research. These books of fishes aimed to verify the correspondence between a fish's name and its biological entity, and then to establish a fish knowledg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In these books, Chinese characters, rather than Korean words, were predominantly used when adopting a fish's name as the section title; and methods of recitation or indirect quotation from a number of literature were largely used when introducing the fish. In addition, it wa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the fish appearing in Chinese or Japanese literature with Chinese character names were the same as other fish with common names in Chosŏn. Finally, if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fish's name and its entity was confirmed, empirical knowledge would be supplemented, and the existing information would be modified through textual research with Chinese or Japanese literature.

This work was a process of reconciling existing textual and empirical knowledge and then comparing and reviewing foreign and indigenous knowledge of East Asia, where a knowledge system centered on Chinese characters was shared. The authors were attempting to secure their role as knowledge producers and implement a relatively balanced knowledge structure in the hierarchy of East Asia.